

【답사기】

‘2024 만주 답사’를 통해 마주친 것들 —“沦陷”의 시공간부터 ‘731부대 진열관’의 동물들까지—

김민지*

I. 만남

지난 학기부터 졸업을 위한 논문 심사 과정에 돌입했다. 다소 부끄러운 상태의 심사본을 제출한 후 학업에 매진하던 중, ‘국민대학교 만주연구소’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답사를 갈 예정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침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어인 ‘경원선’이 북간도 혹은 만주로 향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기에, 잘됐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동행자였다. 아무래도 중국 여행이 처음인 데다가, 만주학회에 처음 찾아보는 것이다 보니, 혼자 갔다가 어색하면 어쩌지 고민되었다. 또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대학원 동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다들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연수였다. 연수와 나는 십여 년 전 어느 협동조합의 초기 조합원으로서 단체의 기틀을 다지고 활동 자금을 마련하느라 고군분투했던 사이다. 다행히도 연수는 상하이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을 정도로 중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 ‘만주 답사’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만약 연수 없이 혼자 참가했다면 나는 그 정도로 잘 지내다 오지 못했을 것이다. 연수 덕분에 나도 용기 내서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 또 낯선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답사팀 선생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하다.

무엇보다 이번 답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다.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존 연구 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유를 따라 읽는 일이기에,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다. 논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런데 이번 답사 동안 ‘만주’에 관한 문학 작품들, 그러한 문학사를 둘러싼 논점을 선생님들의 열정 가득한 목소리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사유를 알아 간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만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답사를 통해 ‘함께 공부하기’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 나에게 2024년 여름의 만주 답사란 ‘기존 연구들’을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였던 셈이다.

II. 장춘에 남겨진 “淪陷”의 시공간

인천에서 장춘(長春)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공항에 모여 아침 9시 비행기에 올라타니, 현지시각으로 10시 10분에 도착했다. 2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이다. 만주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이었다. 내리자마자 우리를 반긴 것은 소나기로 인한 습기와 바람이었다. 비바람을 피해 서둘러 전세버스에 올라타자 쾌적한 바람이 느껴졌다. 역시 답사팀에 합류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방문지는 식당이었다. 회전식 원형 테이블에 착석해 중국에서의 첫 식사를 맛보았다.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내 입맛에 잘 맞아 답사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갔다.

점심 식사 후 찾아간 곳은 ‘위만황궁박물관’(伪满皇宫博物院, 이하 ‘위만황궁’)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 장춘은 ‘만주국’ 시절 ‘신경(新京)’이라는 이름의 수도로 만들어진 도시였다. 그 시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위만황궁’일 것이다.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한번 찍었다. 이후 수차례 반복해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건만, 이때는 다소 어색한 자세로 서 있던 내 모습이 기억난다. 지

금은 답사에 함께했던 선생님들을 떠올리면 친근감이 앞서는데 나는 하얼빈으로 가기 전까지 로봇처럼 굴었던 것 같다.

‘위만황궁’에 도착해서는 자유롭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을 떠나기 전 김창호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덕분에 각 장소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습득한 상태였다. 황궁 안에서도 선생님께서 계속 푸이의 삶과 각 공간의 특징 등을 설명해 주셨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문 곳곳에 남겨져 있는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이었다. 창틀 역시 아마도 페인트를 덧칠한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나무로 보였다. 푸이가 사용했다는 자동차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다. 건물 인테리어나 푸이가 입었던 옷에도 서구적 양식이 반영되어 있지만, ‘근대성’에 대한 당대의 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 중 하나는 차와 같은 이동 수단일 것이다.



[그림 1] 부처님을 숭배하는 공간도 서구식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그림 2] 푸이가 사용했던 화장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잘 도착했다는 의미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셀카’를 하나 찍어서 보내주었다. 그런데 내 얼굴보다는 배경으로 찍힌 글자가 더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에서 잘 접하지 못한 한자어라고. 알고 보니 그 단어는 ‘沦陷’이었다. 만주학회 측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표현이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중국에서는 ‘만주국(滿洲國, Manchukuo)’ 관련 역사를 논할 때 함락(陷落)을 의미하는 ‘윤함(沦陷, 중국식으로는 ‘룬셴’)

을 활용해 ‘동북윤함구(东北沦陷区)’나 ‘동북윤함시기(东北沦陷时期)’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도 한다.¹⁾ 즉 ‘沦陷’은 특정 시기 ‘시공간’의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이다.

1) 해당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 사용의 문제와 당대 중국문학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창호, 2015, 「해방 시기 ‘만주국’ 중국문학의 해체와 평가」,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85쪽 참조.



[그림 3] 당시 '법무부'였던 건물(좌)과 '도서관'이었던 건물(우)

이번 답사 코스에 장춘 시내 곳곳을 걸어 다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공간성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주었다. 당시 장춘에 세워진 여러 건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용되는 중인데, “Manchukuo” 시기 어떤 용도로 설립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들이 각 건물 앞에 적혀 있다. 길만 따라 걸어도 구경할 것이 정말 많았다. 그렇게 걷다 보니, 『만선일보』의 옛터로 추정되는 곳도 가볼 수 있었다. 『만선일보』 연구팀 선생님들께서 반가운 마음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시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저녁 식사 메뉴는 중국식 샤브샤브였다. 한국에도 여러 지점을 낸 ‘하이디라오’와 비슷한 형태의 가게였는데, 여행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성격의 가게라 그런지 친숙하게 느껴졌다. 잘 먹고, 숙소에 도착하니 이미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다음날 조식 먹을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Ⅲ. 강렬한 태양의 도시 심양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 기차역으로 향했다. 심양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동행한 친구 연수가 중국에서의 아침 식사 문화를 알려준 덕에 조식을 알차게

챙길 수 있었다. 죽이랑 비슷한 ‘저우(粥)’부터 기름에 튀긴 빵 ‘유타오(油条)’, 우리에게만두로 익숙한 ‘바오즈(包子)’ 등. 연수가 유학 시절 아침마다 주로 먹었다는 메뉴들을 호텔 조식으로 맛보았다. 나는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콩국이라 할 수 있는 ‘또우장(豆浆)’을 활용해 ‘두유라떼’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역시 답사의 보람 중 하나는 식(食)문화 체험이 아닐까 싶다.

기차는 장춘서역(长春西站)에서 탑승했다. 중국 여행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중국의 기차역 역시 처음이었다. 장춘 기차역의 첫인상은 ‘서울역’이랑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고속철의 이등석에 탑승했는데 KTX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김창호 선생님께서 젤리도 사주시고, 일행 모두 모여 앉은 김에 단체사진도 찍으니 단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오전 10시를 조금 넘겼을 때쯤, 심양북역(沈阳北站)에 도착했다. 굉장한 규모의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차해야 했다. 긴장한 상태로 앞사람의 뒤를 바짝 쫓았다. 우리 답사팀 버스에 올라타서야 ‘후’하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심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심양고궁박물관(沈阳故宫博物院)’. ‘심양고궁’이라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청 태조 누르하치가 축조한 궁으로, 후금 또는 청나라 역사를 짚어볼 때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전날 방문했던 ‘위만황궁’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 느껴졌다. 중국 역시 여름방학을 맞은 시기였기에 가족 단위로 찾은 이들이 많았다. 궁 내부에서도 줄지어 이동할 정도였다. 그 혼란 속에서도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과거 조선 인조의 사신들이 참석했던 청 태종의 황제 즉위식이 아마도 이 자리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현장성을 더해 정보를 전달해주셨다. 병자호란 이후 인질로 청나라에 가게 된 소현세사가 심양고궁 인근에 머물렀다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도 근처에 있는 ‘장씨수부박물관/장학량구거진열관(张氏帅府博物馆/张学良旧居陈列馆)’까지 걸어서 이동했기에 조금이나마 주변까지 둘러볼 수 있었다. 1914년 건설됐다는 이 건물은 당시의 ‘군벌’ 장작림·장학량 부자의 집이자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규모가 꽤 큰 데다가,

심양고궁과 더불어 방문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이제 심양을 떠 올리면 강렬한 햇빛과 어마어마한 인파가 먼저 떠오를 것 같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교자집엘 방문했다가 서둘러 다음 장소로 향했다. 심양에서의 마지막 목적지는 ‘푸순탄광박물관(抚顺煤矿博物馆)’과 ‘푸순노천탄광(抚顺西露天参观台)’이었다. 탄광이 여전히 운영 중이라 들어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품고 도착했는데…… 이런! 이미 박물관은 폐관 시간에 가까워 입장이 어렵다고 했다. 멀리서 간 방문객 입장에서선 참 아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기길 바랄 뿐이다. 아쉬운 대로 버스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해 탄광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차 여쭙자, 선생님들께서 저기 보라고,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고 짚어주셨다. 울타리에 바짝 붙어 내려다보니 연기 사이로 때마침 기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현재도 운영 중인 푸순탄광

이날 저녁 식사는 ‘한식’이었다. 된장찌개와 오징어볶음 등 익숙한 음식들 사이로 언뜻 ‘카오위’와 비슷해 보이는 생선찜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현지에서 생산된 병맥주도 곁들여 먹었는데 유난히 더운 날이어서 그랬는지 술술 넘어갔다. 식사하는 동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분들의 연구 관심사도 들을 수 있었다. 선

생님들께서 내 논문도 꼭 완성될 수 있길 응원해 주셨다. 논문이 잘 풀리질 않아 답답한 와중에 기행문을 쓰며 이때의 대화를 복기해 보니, 조금은 힘이 난다.

마지막으로 심양의 ‘코리아 타운’이라 불리는 ‘서탑거리(西塔街)’엘 잠깐 들렀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꼭 ‘코리아 타운’이 아니더라도 이동 중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반갑기도 하고 묘한 기분 이 들었다. 서탑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옆에 있던 한 선생님이 빠르게 노상에서 판매 중이던 방향제류 기념품을 구입했다. 괜히 나도 뭐라도 사고 싶어 둘러봤는데, 초행자에게는 소비조차 쉽지 않았다. 장춘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엘 가서도 여러 기념품 가게를 들어가 보았지만, 고민만 하다 결국 아무것도 구입하지 못했다.

IV. 장춘을 떠나 하얼빈으로

하얼빈으로 이동하는 날, 장춘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일명 ‘만영박물관’이라 불리는 ‘장춘영화박물관(长影旧址博物馆)’이었다. 이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会社)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받아 설립된 ‘만영(滿映)’, 즉, 만주영화협회(滿洲映畫協會)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간은 “만영(滿映)”으로 소개되어 있어, ‘만주국’ 시기에 ‘영화’라는 매체가 지녔던 무게를 돌아보게 한다. 1945년, 1946년 등 주요 사건 및 자료가 많은 시기는 연 단위로 끊어 각각의 특징을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어느 시기에는 ‘공산주의’ 관련 영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멜로드라마’ 식의 로맨스물이 주를 이루기도 하는 등 시대별 관심사(혹은 ‘체제의 영향’이라고 해야 할지요?)를 살필 수 있어 재밌었다. 여기서 부터 나는 사책 선생님께 빌붙기^① 시작했다. 2024년 8월 고려대학교에서 『만선일보』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책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게 역사적 배경과 문 화사를 들려주었다. 전문가에게 ‘1:1 과외’를 받을 기회는 정말 귀한데, 실제 자료 까지 눈앞에 두고 ‘명강의’를 들을 수 있어 더 고맙게 느껴졌다. 몇몇 선생님들께

서는 ‘만영박물관’ 밖으로 나오며 자료집을 구입하시기도 했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나는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다. 귀국하고 (졸업하게 된다면...) ‘반드시 중국어 공부를 하리라!’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림 5] ‘만영’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춘영화박물관

불고기와 잡채 등을 파는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하얼빈으로 향했다. 중국은 중국 안에서 이동할지라도 기차를 이용한다면 탑승할 때마다 공항에서처럼 ‘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날 심양에 다녀올 때 이런 점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우리 버스’로 이동하니 편히 갈 수 있었다. 고속도로 같은 것을 이용했기에 휴게소에도 들러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알리페이’를 이용해 음료를 사보기도 했다. 아쉬운 점은 슬슬 일정의 중반 정도가 지났는데 밀크티를 먹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온 김에 중국 현지의 밀크티를 먹어보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였는데…… 약간 초조해지기도 했다. 답사를 왔으면 한 장소라도 더 보고 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음식 하나를 더 먹어볼 생각을 한다니, 아직도 나는 공부할 준비가 덜되었구나(?) 싶어 ‘아차!’ 싶었다.

오후 4시 반을 넘겼을 무렵, 마침내 하얼빈에 도착했다. 송화강 크기에 놀라며 중앙대가로 향했다.

V. 꼭 다시 가봐야 할 하얼빈

이전의 장소들도 모두 좋았지만, 하얼빈에서는 좋았던 기억이 너무도 많아 이 기행문에 다 적지 못할 정도다. ‘중앙대가’부터 ‘샤오홍 기념관’, ‘안중근의사 기념관’ 등 여러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모두 함께 많이 걸었다. ‘중앙대가(中央大街)’에 서는 이효석이 머물렀던 ‘모던호텔(马迭尔宾馆, Modern Hotel)’을 밖에서나마 구경해 볼 수 있었고, 자유시간을 얻어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사실 처음엔 ‘모던호텔’ 1층 카페엘 들어갔다가 너무 비싸서 곧바로 나왔다). 친구 연수와 둘이서 열렬결에 찾아간 카페는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able)’한 곳이었는데, 서울의 을지로나 성수 등에 있는 카페들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었던지라 잠시 답사 중이라는 것을 깜박 잊을 정도였다. 이 동네는 예나 지금이나 역시 커피로구나, 싶었다.

‘샤오홍 기념관(萧红纪念馆)’은 아마도 정겨울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자세히 소개해주실 것 같아 이 글에서는 생략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수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로 알고 있어, 함께 방문한 것이 더욱 뜻깊었다. 이 기념관에서는 샤오홍이 짧다면 짧은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이를 논문 글자 수로 환산하여, 1년에 몇 편의 논문을 써야 샤오홍 만큼 쓰는 것일까, 계산해 보시기도 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연수도 자신이 평소 쓰는 글의 분량을 기준 삼아 계산해 보았다. 서로 호홉이 다른 글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난 계기도 ‘글쓰기’를 목표로 모인 곳이었기에, 샤오홍의 의지가 두 배로 깊게 와 닿는 기분이었다.

‘안중근의사 기념관(安重根义士纪念馆)’은 하얼빈역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기차표를 끊지 않더라도, 기념관 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격을 가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기차를 타고 바쁘게 어디론

가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당시 현장을 표시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의 한계로 이제 이 글에서는 ‘침화일군제731부대죄증진열관(侵华日军第七三一部队罪证陈列馆, 이하 ‘731부대 진열관’)에 집중할까 한다.

4일 차 아침, 호텔에서 준비된 조식을 서둘러 흡입하고, ‘731부대 진열관’으로 향했다. 일주일 전 다녀오신 가이드 선생님께서 방문객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예고해주셨다. 잔뜩 긴장한 채로 도착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방문한 날은 아직은 (?) 사람이 적은 편이라고 했다. 그래도 입장을 위한 줄은 결코 짧지 않았다. 대기하는 동안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대기하는데, 다른 줄에서 있던 방문객들이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반응했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익숙한 언어에 절로 대답이 나왔다. “네, 맞아요!” 우리의 말에 “멀리서들 오셨네~”라는 대답에 어떤 반가움 같은 것이 담겨 있다고 느낀 것은 나의 착각일까. ‘731부대 진열관’은 어떤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모종의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는 듯 보였다. 다만, 이때의 ‘동질감’이란 전쟁과 같은 폭력의 역사를 돌아보고 후속세대인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을 짚어보겠다는 의지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덧붙여 두고 싶다.

‘731부대 진열관’ 내부에는 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하는 방식 또한 다양했다. 가령 지도,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는 물론이며 ‘생체 실험’에 대한 보고서와 같이 당시 제작된 자료도 배치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공간 구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 준비되어 있으며, 전시관 외부에는 실제로 사용됐던 건물의 일부가 보존되고 있어 가까이서 살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직접 가보기 전엔 잘 몰랐던 지점인데, 동물 대상 실험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을 위해 작은 동물들을 가둬두었던 철창, ‘독가스실험(Poison Gas Experiments)’ 과정에서 짐을 나르던 말 역시 고통받았음을 짐작케 하는 조형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2일 차에 방문했던 심양에서 차창 밖으로 산책 중인 강아지가 보이기도 했다. 누군가의 반려견인 듯한 강아지를 마주치는 것은 4박 5일의 일정을 돌이켜봐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한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내가 방문했던 곳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길고양이들의 모습이다. 같은 날 오후에 방문했던 '장학량구거진 열관(张学良旧居陈列馆)'이나 4일 차 하얼빈에서 방문했던 '샤오홍 옛집'에서는 길고양이들이 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기 고양이들은 양지에서 구르며 관광객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전쟁의 참혹함은 비단 인간종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기에, 인간이라면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그림 6] 우리에게 갇힌 동물 모형



[그림 7] 731부대의 잔재

VI. 남은 것들

사실 이 기행문에 적지 못한 것들이 참 많다. 가령 장춘에서는 버스의 맨 앞줄에 앉아 현지 거리를 가까이서 내려다보며 교통 문화(?)를 체감한 일—우리가 이용한 버스가 오래된 버스인 ‘덕분에(이제 금지된 형태라 신형 버스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운전석 위로 이층 버스와 비슷한 형태의 좌석이 있었음—, 하얼빈에서 송화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오래된 철교 등. 그리고 하얼빈 숙소 근처에 있던 꼬치구이 ‘맛집’에서 처음 먹어본 마라롱샤도 기억에 남는다. (정겨울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기간도 겹치고 해서 답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첫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답사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만주 전문가’라는 공통점뿐 아니라 ‘다정함’이라는 주요 공통분모를 지니고 계셨다. 두루뭉술한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했다. 확실한 주장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아주 많지만, 약소하게나마 나의 가설(이라고 불려도 될까요?)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 향후 내가 가게 될 길,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해 준 4박 5일의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관련 공부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첫 답사’가 남긴 여운을 만끽해 볼까 한다.